

홈 > 뉴스 > 뉴스 > 북미 | 재외동포 한글교육 실태

미주 한인, 차세대 교육을 위해 뭉치다

2015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후원회 밤

2015년 11월 02일 (월) 12:06:15

김영기 기자 ✉ tobe_kyg@naver.com



▲ (사진 재미한국학교협의회)

재미한국학교협의회(NAKS) 이사회(이사장 장동구)은 10월 29일 워싱턴 인근 팰리스 식당에서 'NAKS 후원회 밤'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.

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워싱턴 지역과 미국 내 14개 지역협의회 뿐 아니라 전현직 재미한국학교 이사장, 총회장, 임원, 주워싱턴 총영사, 주미대사관 교육원, 여러 한인 단체 등의 힘으로 마련됐다.

총 150여 명이 참석해 행사를 진행한 결과, 1만 8000달러의 기금이 모여 차세대 교육에 관한 중요성을 한인사회가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협의회는 전했다.

협의회 장동구 이사장은 "34년 전 협의회 창립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기 위해 이사회가 나서게 됐다"며 "이번에 모금된 기금이 차세대 교육을 위해 공의롭게 사용되기를 바란다"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.

